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3월 4일(주일) 제1186호



사진은 가톨릭 프로젝트 야외활동

차세대와 함께하는 ‘다음세대 응원단’

3월 15일과 22일 ‘차세대 교사부흥집회’ 막 올라
양재 사랑홀 19시 30분 이상준, 서정인 목사 강의

차세대사역본부가 교사부흥집회 ‘다음세대 응원단’을 개최한다. 3월 15일과 22일 오후 7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막 오른다. 차세대 교사부흥집회는 차세대 교

사와 부모들을 위한 집회이다. 열정과 헌신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3월 15일에는 이상준 목사(양재 온누리교회), 3월 22일에는 서정인 목사(컴패션 대표)가 강의한다. 서정인

목사는 10년 넘게 컴패션 대표로 섬기고 있다. 컴패션은 국제 어린이양육기구이다. 도움이 필요한 전 세계 어린이들을 일대일로 결연해서 자립 가능한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고

있다. 현재 25개국 18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컴패션의 도움을 받고 있다.

차세대 교사부흥집회에서는 파워웨이브 학생들의 특순, 교사 간증 등의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온누리교회 차세대 소속 교사나 부모, 다음세대를 응원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차세대사역본부장 노희태 목사는

“치열한 학업 중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차세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응원해줄 응원단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교사부흥집회를 통해 신앙의 회복도 얻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차세대에게 흘려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안민경 간사 (02-570-7553)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3월 18일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주차증 발부 받은 차량만 이용

3월 18일(주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이다. 이날은 자가용 말고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이촌역에서 서빙고 온누리교회,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이촌역, 양재역에서 양재 온누리교회,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양재역을 오가는 셔틀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이날 교회주차장은 사전에 주차증을 발부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70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36개월 이하 자녀동반, 자녀 3명 이상, 챔버 중 첼로 연주자 등이 그 대상이다. 그렇다고 교회 주변에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

온누리교회는 이웃을 배려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분기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팀 켈러 목사 초청 센터처치 컨퍼런스

4일 장충체육관, 5~7일 양재 온누리교회

팀 켈러 목사 초청 ‘2018 센터처치 컨퍼런스’가 오늘부터 7일까지 이어진다. 팀 켈러 목사(뉴욕 리더마장로교회)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센터처치 사역과 30년 목회 경험을 나눌 예정이다.

오늘(4일)은 평신도를 위한 북 콘서트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오후 6시 30분에 열린다.

목회자를 위한 ‘2018 센터처치 컨

퍼런스’는 5일부터 7일까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된다. 5일은 오후 2시, 6일과 7일은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된다.

2018 센터처치 컨퍼런스에서 팀 켈러 목사는 ‘복음, 도시, 운동’을 주제로 리더마 장로교회의 성장 및 분립 개척 과정과 ‘리더마 시티 투 시티(Redeemer City to City)’ 사역의 비전을 나눌 계획이다.

/ 이소정 기자

서빙고 예배 장소 및 시간 변경

3월 18일부터 서빙고 온누리교회 영어예배, 십자가의 길, SNS공동체 예배 장소가 변경된다.

영어예배는 본당에서 경찬홀로, 십자가의 길은 경찬홀에서 비전홀로 장소를 이동한다. SNS공동체 예배장소는 비전홀에서 본당으로 변경되고, 예배시간도 오후 4시 30분에서 오후 4시로 바뀐다.

예배	장소	시간
영어예배	경찬홀	오후 4시
십자가의 길	비전홀	오후 4시
SNS공동체	본당	오후 4시



지난 1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순장영성수련회.

순장이 살아야 순이 살고, 순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2018 순장영성수련회 ... 신임다락방장 및 순장 454명 임명

“순장이 살아야 순이 살고, 순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지난 1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 순장영성수련회는 순장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재헌신하는 은혜의 자리였다. 순장이 살고, 순이 살고, 교회가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간구의 장이기도 했다.

2018년 순장영성수련회에는 온누리공동체 리더십(교역자, 장로, 권사, 순장, 다락방장 등) 1,8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순장영성수련회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안용태 장로 대표 기도, 박은조 목사와 유기성 목사의 환영인사, 교역자들의 스킷 드라마, 이재훈 담임목사의 강의, 기도회, 점심식사

및 이벤트, 2부에서는 패널토의, 신임순장 및 다락방장 임명식, 순장 축복의 시간, 격려 메시지 및 순장의 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순장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돌봄, 제자도, 친밀함 같은 도전들이 가장 활발한 곳이 순”이라며 “순장들이 여러 도전들을 주님 안에서 극복해 낼 때 귀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질 것”이라며 순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신임다락방장과 신임순장 454명이 세워졌다. 서정택 다락방장, 권해욱 순장(남자 순장), 명길례 순장(여자 순장)이 대표로 이재훈 담임목사로 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시상도 이어졌다. 최고령 순장상, 최연소 순장상, 산전수전 순장상, 기러기 순장상, 감동상 등 총 50 여 명을 시상했다.

최고령 순장상 김영배 성도(성동광진공동체), 최연소 순장상 최훈 성도(동대문중앙공동체), 산전수전 순장상(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섬기는 순장) 라팔모 성도(신용산공동체), 기러기 순장상(가장 먼 거리를 이동해서 순을 섬기는 순장) 최재영 성도(강남A공동체), 감동상(열심히 예배하고 순을 섬기며 감동을 주는 순장) 서인택 성도(양지공동체)가 수상했다.

/ 김영선, 이소정, 권찬송 기자

신임다락방장, 신임순장 각오

섬기고 화해시키는 순장

“순원들을 더 큰 사랑으로 섬기고, 순원들을 화해시키는 순장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을 순원들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 하영순 순장 (양재공동체)

더 나은 순장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순장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공동체 행사에 더욱 열심히 참석해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성경공부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시풍 순장 (천양사역공동체)

지역사회 섬기는 다락방

“저희 다락방은 직접적으로 섬길 수 있는 분야를 동사무소 등을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다락방이 섬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 정호진 다락방장 (양재공동체)

주님만 바라보는 다락방장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뽀족하게 모나있는 저를 다듬으시고 성장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 이승은 다락방장 (브릿지33공동체)

순장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순장영성수련회에서 시상한 순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타인에게 귀감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은혜와 축복의 순장들이라는 점이다.

최고령 순장장

섬김에는 나이가 상관없다. 김영배 순장(성동광진공동체)은 올해 84세지만 큰 어려움 없이 순모임을 이끌고 있다. 열정만큼은 젊은 순장들 못지않다. 관록과 지혜 덕분에 순원들이 매번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최연소 순장

어리다고 놀리지 말라, 젊어도 할 건 다 한다. 최훈 순장(동대문중앙공동체)은 올해 37세로 공동체 순장 중에서 막내다. 2013년에 순장학교를 수료했지만 직장이 떨어져 순장으로 섬기지 못하다가 2015년부터 섬겼다. 벌써 순장으로 섬긴지 4년차다. 어리지만 베테랑이다. 최 순장은 “부모님과 연배가 비슷한 순원들과 함께 순모임을 하다 보니 어려움도 있지만 믿음과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축복의 장”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나무 같은 순장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산전수전 순장

어려운 삶 가운데 귀한 섬김을 보여주는 순장들이 있다. 라팔모 순장(신용산공동체)이 그렇다. 라 순장은 앞선 데 뒤틀린 격으로 안 좋은 일이 거듭됐다. 영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간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받으려고 귀국했다. 간 치료도중에 신장도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투석도 받고 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모임에 대한 열정이 전혀 사그라지지 않았다. 라 순장은 순모임을 할 때면 몸이 살아나고, 순모임이 없는 방학에는 몸이 쳐진다고 한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으로 순원들을 위로할 것”이라고 했다.

기러기 순장

순모임을 위해서 기러기처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는 순장들도 있다. 최재영 순장(강남A공동체)은 순모임을 위해 매주 대전에서 강남까지 왕복 320km를 오간다. 지난해 대전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이다. 최 순장은 매주 금요일마다 사활을 걸고 칼퇴근을 하고 있다. 순원들이 보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에 320km나 되는 여정이 집 앞 오가는 것만큼 가깝게 느껴진다고 한다. 그는 겸손까지 겸비했다. 기러기 순장 수상소감을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영성이 뛰어난 순원들이 많아서 순원들에게 늘 배우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감동 순장

전심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과 은혜를 주는 순장들이 있다. 서인택 순장(양지 온누리교회)도 그 중 한명이다. 서 순장과 자녀들이 순원들에게 늘 감동을 주고 있다. 서 순장과 자녀들은 늘 함께 순모임에 참석한다. 순원들은 그 모습에 감동받아서 서 순장의 자녀들에게 축복기도를 해준다. 서 순장의 자녀들은 다른 순원들의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혹여나 부모들의 순모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서 순장은 “순원들이 더욱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고 섬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교훈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첫 교훈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훈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훈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대속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이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많은 비유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직설화법으로 가르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추상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알려주시는 여러 비유들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뿌려져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거나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려서 열매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싹이 나고 자라는 것 같다가도 결국 뿌리내리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가시덤불에 던져진 씨앗은 가시덤불에 가로막혀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국 열매 맺지 못합니다.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씨앗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역사를 설명하셨습니다.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흙과 씨앗 비유가 너무나 적절한 것은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마음속에 떨어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길가, 가시덤불, 돌밭에도

그런데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읽으면서 “왜 주의 깊게 씨앗을 뿌리지 못하고 돌밭이나 길가, 가시덤불에 씨앗을 뿌렸습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밭인지 아닌지 잘 구별해서 씨앗을 뿌렸으면 씨앗을 낭비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농부의 부주의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의 척박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도 평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땅이 산으로 되어 있어서 돌이 많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지역에서는 집을 나무로 짓지 못하게 합니다. 법적으로 돌로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정도로 돌이 많습니다. 그만큼 돌밭이 많은 지역입니다. 밭을 일굴 수 있는 땅은 평야보다 돌과 가시들이 혼재되어 있는 땅입니다. 좋은 땅을 구별해서 씨앗을 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척박한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비유는 슬픔입니다. 좋은 땅에서만 열매 맺고 나머지 땅에서는 씨앗들이 낭비되는 것이 얼마나 슬프니까? 좋은 밭이 아닌 땅에도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땅으로 비유될 수 있는 마음에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단단한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잘 듣고 순종하는 마음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려고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악한 심령에도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십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심령들에게도 씨앗을 뿌리십니다. 잘 들으려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는 성도들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완악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심령에게도 환경과 상황과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씨앗을 뿌리시는 농부입니다.

‘길가’와 같이 마음이 단단한 밭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가 뿌려졌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밭입니다. 길가와 같이 마음이 단단한 밭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19절).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그 표피가 단단해진 상태입니다. 표피가 단단해져서 씨앗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뿌리내리려면 땅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작고 연약한 씨앗이 덮일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길가는 땅이 단단하기 때문에 씨앗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단단한 표피만 견어내면 좋은 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이 딱딱해서 씨앗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은 상태라면 겉이 단단해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상처와 짓밟힘, 아픔과 거절, 두려움과 죄로 인해서 마음의 표피가 단단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좋은 밭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의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들려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질문을 던지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으려고 질문하는 것이지 마음을 열고 들으려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초록색 신호등은 Work, 빨간색 신호등은 Don't work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 건지 말라고 하니깐 뛰어서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건지 말라고 하니깐 뛰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사탄이 쉽게 다가와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갑니다. 이러한 마음의 토양도 바뀔 수 있습니다. 가끔 길을 가다보면 단단한 콘크리트 사이에 잡초와 꽃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작은 틈사이로 생명이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길가와 같이 단단해도 작은 틈만 있다면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습니다. 길가처럼 굳어진 마음에 언제 틈이 생깁니까?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단단함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임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작은 틈이 있어야 씨앗이 심겨져서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단단했던 마음이 깨어지면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리고,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이 자라기 시작하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피상적 신앙 ‘돌밭’

두 번째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있습니다. 바로 돌밭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20-21절).

돌밭의 특징은 밭에 뿌려진 씨앗보다 더 빨리 싹이 납니다. 흙이 얇고 그 밑에 돌이 있는데 돌에서 올라오는 온기 때문에 빨리 싹을 낼 수 있는 환경입니다. 유대인의 농사월력으로 10월에 씨를 뿌리면 11월이나 12월에 태양의 열기가 서서히 누그러지는데 온돌효과 때문에 적절한 온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돌이 없는 흙보다 돌이 있는 흙에서 싹이 빨리 납니다. 노련한 농부들은 먼저 싹이 나는 것은 밑에 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싹은 먼저 나지만 뿌리 내지 못하고 결국 말라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돌밭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정적, 순간의 흥분, 군중심리,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피상적으로 믿으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고난과 핍박 등 어려운 상황이 오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영적인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지적 했습니다.

“피상성은 이 시대의 저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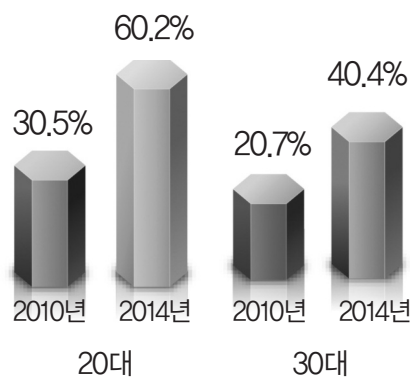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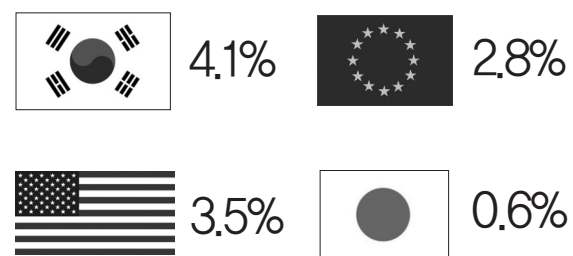
피상적 신앙은 절대로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돌밭은 길가와 정반대입니다. 길가는 씨앗 자체가 뿌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밭은 씨앗을 잘 수용합니다. 금방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돌이 들어 있습니다. 속에 들어 있는 돌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옳다고 믿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계관을 ‘창자 속에 내려가 있는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비판하지만 그 생각과 비판 이면에 있는 자신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과 같은 것입니다. 이 돌이 깨어지고 파괴되지 않으면 말씀의 씨앗이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신앙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겉은 크리스천인데 속으로는 돌같이 막혀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3면에 계속>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 ‘무죄’, “동성애 거부감 없다” 응답 증가
젊은층 중심으로 인식 변화 … 위험성 알리고 경각심 일깨워야



동성결혼 지지율

신규 에이즈 환자 중 10대 비율
(2015년 기준)

대한민국 창군 이래 최초로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났다. 지난달 22일 서울북부지법원 형사9단독은 군대 내에서 동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로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난 사례는 법 제정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동성애에 대한 인식 변화로도 해석될 수 있어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인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변화

이처럼 한국인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급변하고 있다. 동성애자를 포함한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젊은층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진다. 아산정책연구원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한 ‘동성애, 동성결혼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2010년에는 “동성애자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고 응답한 20대가 26.7%였는데 2014년에는 47.4%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동성애자에 거부감이 없다”고 응답한 60세 이상의 노년층은 2010년 6.2%, 2014년 7.1%로 거의 변하지 않은 것과 대조된다.

동성결혼에 대해서도 젊은층이 훨씬 관용적이다.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비율이 2010년 20대 30.5%, 30대 20.7%였는데 2014년에는 20대 60.2%, 30대 40.4%로 늘었다.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동성애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매우 개방적이라는 사실이다. ‘고등학교 동성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2017)’ 연구에 따르면 동성애에 대하여 “나와 다르나 그럴 수 있다(49.7%)”,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29.3%)”는 응답이 79%를 차지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동성애와 관련된 정보를 접하는 매체는 신문기사가 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동성애 관련 강의(26.8%), 드라마, 영화, 동성애팬픽(팬들이 쓴 소설), 책(11.7%),

SNS나 블로그 등 인터넷 공간(10.6%) 순이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동성애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있었다.

청소년, 남성 에이즈 감염자 비율 증가

A군(17세)은 시도 때도 없이 때리는 친아버지를 피해 가출했다. 마땅히 지낼 곳이 없었던 A군에게 솔직한 제안이 하나 들어왔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 B씨가 함께 살자고 요구한 것. 그 남성은 숙식해결을 조건으로 A군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1년을 버텼다. 그사이 A군은 또 다른 남성 C씨를 만났다. C씨는 A군에게 자신이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에이즈)감염자라고 밝혔다. 성매매 현장에서 붙잡힌 A군은 HIV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청소년들조차 에이즈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시대가 되었다. 10~20대 남성 에이즈 감염자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다. 병무청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으로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이 2013년 88명에서 2015년 125명으로 늘었다. 이 수치만 봐도 10~20대 초반 남성 에이즈 환자들의 증가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2016)는 우리나라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가 1,199명이라고 밝혔다. 내국인이 1,062명이었고, 그 중 남성이 1,002명이었다.

2011년 조사(888명)보다 174명이 늘었다. 우리나라 신규 에이즈 감염자 중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2015년 기준) 4.1%인데 미국(3.5%), 유럽연합(2.8%), 일본(0.6%)보다 높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2015년 한국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15~19세 남성 신규에이즈 감염인 수가 2000년 2명에서 2015년 41명으로 21배나 증가했다. 20~24세의 남성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는 2000년 15명에서 2015년 185명으로 12배 증가했다. 남성 에이즈 발병율과 동성애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남성 동성애자들은 항문 성관계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항문파열이나 항문출혈과 함께 매독균에 노출되거나 에이즈에 걸린다. 만약 에이즈가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 감염이 되었다면 에이즈 발병율이 남자와 여자 각각 절반이어야 한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 자료(2015)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 환자 93%가 남성이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동성애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한 뜻 깊은 아카데미가 열렸다. 지난달 26일과 27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가 그것이다. 다음은 지난 26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다.

동성애의 선천성

김원평 교수(부산대)는 동성애의 선천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믿음은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언론의 대서특필로 만들어진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잘못된 과학적 개념을 가지고 동성애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 중 하나가 동성애가 선천적 동성애와 후천적 동성애로 나뉜다는 주장이다. 그들은 단순히 동성애를 못 끊으면 선천적 동성애이고, 끊으면 후천적 동성애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다. 또한 동성애는 타고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동성애가 만들어지는 원인은 부모와 친구의 영향 등 후천적인 요인이 크다.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우연히 동성애를 경험하고 중독된다. 동성애를 미화하는 문화와 사회풍토도 동성애를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독재법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아이앤에스)는 ‘성

적지향’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지적하며 사회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동성애자들과 동성애 옹호론자들에 의해 법률적, 도덕적, 문화적, 신앙적으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작업들이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2015년 국민투표 없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동성애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고, 동성애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졌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동성애 수용 및 지지를 강요하는 동성애 독재법이다. 동성애 반대에 필요한 서명운동과 반대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동성애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야 한다.”

동성애의 보건의료적 문제점

김지연 약사(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대표)는 동성애에 따른 보건의료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폐단 때문이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남성동성애자들은 변신금, 항암약, 구강압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보건복지부는 남성동성애자들이 항문 사마귀증과 A형, B형, C형 간염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영국 보건복지부는 남성동성애자들에게 이질의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청소년에이즈도 심각하다. 청소년에이즈는 동성 간 성관계에 의해 전파되고 있고 그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상에 동성애 폐단을 알려야 한다. 동성애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동성애의 삶과 생활 속 동성애

백상현 기자(국민일보)는 생활 깊숙이 파고든 동성애 문제를 크게 염려했다.

“국내 남성 동성애 사이트 회원 수가 24만

명이다. 한 동성애 사이트에 ‘에이즈’라고 검색하면 800개가 넘는 글을 확인 할 수 있다. 에이즈의 감염경로 99.9%가 성접촉에 의한 것이다. 에이즈의 잠복기간은 10년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감염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보건소에서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서 이성 간 성 접촉으로 감염되었다고 고백했던 감염자들이 추후에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례가 많다.”

바울이 말하는 동성애

신원하 교수(고려신학대)는 동성애 문제를 신학적으로 지적하였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 어떤 종류의 동성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악임을 가르치고 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나와 있는 ‘남색하는 자’와 ‘탐색하는 자’의 헬라어 어원을 이해해야 한다. ‘남색하는 자’는 헬라어로 ‘알세노코이타이’로서 바울이 구약에서 가져온 단어이다. 능동적인 동성애자를 의미한다. ‘탐색하는 자’를 의미하는 ‘말라코이’는 대다수 많은 학자들이 ‘말랑말랑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에서 왔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역할을 하는 수동적인 동성애자로 해석된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들을 구약(레위기)에서 가져와서 사용한 이유가 있다. ‘동성애 금지’가 구약의 모든 제사의식들과 같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규범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동성애 파고에 맞선 하나님의 의병

염안섭 원장(연세수동병원)은 우리가 동성애에 맞서는 하나님의 의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 남성 간 항문성교를 경험한 인구가 60만이 넘는다는 조사가 있다. 동성애는 결코 소수가 아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가장 큰 이익집단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동성애에 노출되어 있다. 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돈을 벌기위해 바둑(남성과 성교 시 여성의 역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들은 동성애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이용해서 성매매를 한다. 이러한 무분별한 항문성교로 인해서 청소년 에이즈 비율이 25배나 증가했다. 여성 에이즈 환자는 대부분 윤락여성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동성애 남편을 둔 평범한 주부들이다. 대한민국은 마지막 영적전쟁을 치르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이 영적싸움에서 패하게 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일제 신사참배 이후 가장 강력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병이 되어 이 땅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큰 상금을 받게 될 것이다.”

동성애 합법화 저지의 역사

이용희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는 동성애 합법화 저지 역사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미국은 지난 2015년 6월 26일 연방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헌으로 선언하였다.

우리의 역할을 되짚었다.

“2007년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입법시도가 있었다. 당시 법무부 인권부에서 21일 동안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숏한 노력 끝에 2007년 11월 5일 법무부는 21가지 항목에 대한 차별금지법안 전체를 입법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동성애 물결은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해달라고 헌병소원을 낸 일로부터 확산됐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세는 한풀 꺾이고, 동성애 입법 저지 파켓시위가 줄기차게 지속되었다. 법무부에서도 동성애차별금지법을 입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동성애 합법화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계몽홍보팀을 만들어서 동성애에 대한 진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교육해야 한다. 언론과 미디어에서 전파하는 동성애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을 검토해야 한다. 동성애를 잘 연구해서 동성애자들이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

쿼어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상원 교수(총신대)는 쿼어 신학에서 주장하는 동성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쿼어 신학자들은 낯설다는 말에 초점을 둔다. 그들의 논리는 낯선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

주셨듯이 우리도 낯선 대상인 동성애자들을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낯설고 이상하다는 의미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너무 기괴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남성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를 여자로 만드셨다. 인간존재 자체는 완전하다. 남녀의 만남은 두 명의 완전한 인간의 만남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동성애와 다국적 기업

한정화 교수(한양대)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행태를 꼬집으면서 교회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동성애 지지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회장은 2012년 동성결혼 법안 추진에 지지 선언을 했고, 2014년 애플의 CEO인 팀쿡은 커밍아웃을 했다. 구글은 미국과 해외에서 열리는 LGBT 퍼레이드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기업들은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입장과 성소수자들의 시장성이 커지는 현상을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한다.

교회는 동성애 확산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

적 영향에 대한 근거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족의 가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 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해주고 이 사회를 지켜낸다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다.

필그림교회 미국장로교회 탈퇴 이유

양준길 목사(필그림선교교회)는 미국 필그림교회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다.

“미국장로교회는 교단법을 바꾸고 동성애자들에게 안수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법과 대립하는 것이기에 대다수의 필그림교회 교인들이 미국장로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교단 측은 법정에 리더십들이 교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명령을 요청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법정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기에 교회 건물을 포기하고 나와야 했다.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순교자적인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번 일을 통해서 필그림교회는 ‘필그림선교교회’로 새롭게 세워졌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 이소정, 권찬송 기자

동성애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방법

1. 국민참여 개헌 1688-9782에 동성애 반대 문자하기.
2. 개헌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헌법’ 검색 → 사이트 방문 →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 → 반대로 투표)
3. 국민발안제(직접 민주제 중 하나. 국민이나 한 지방의 주민이 직접 입법에 관하여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 반대
4. 자치입법권(지방에서 법률에 준하는 법을 만드는 것) 반대.
5. 지역시민사회 간담회 때 참여하여 목소리내기

강동 온누리교회 창립 10주년

하나님께 칭찬 받는 바로 그 교회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민들에게 사랑을



강동 온누리교회 창립 10주년 감사예배에서.

지난 25일, 강동 온누리교회가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강동 온누리교회는 ‘건대 온누리교회’라는 이름으로 2008년 2월 24일 태동했다. 2010년에는 교회 이름을 강동 온

누리교회로 변경하고 예배처소를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거리 나비쇼핑몰로 옮겼다. 강동 온누리교회는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민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선물하면서 하나님과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로 자리매김 했다.

강동 온누리교회가 태동한 이유는 단 하나 ‘지역 복음화’다. 2007년 12월, 당시 여호수아 공동체 소속 청년 536명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건국대학교 예배당으로 파송됐다. 그들을 중심으로 프라미스공동체가 세워졌고, 2008년 2월 24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강당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강동 온누리교회의 전신이다. 당시 명칭은 건대 온누리교회였다. 온누리교회 아홉 번째 캠퍼스 교회다.

2010년 10월 3일, 건대 온누리교회의 명칭을 강동 온누리교회로 변경하고, 예배처소를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거리로 옮겼다. 강동 온누리교회는 무엇보다 지역사회 복음화에 앞장섰다.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를 마치면 천호동 나비쇼핑몰 부근 거리청소부터 했다. 천호3동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반찬

봉사를 하고, 조손가정에 연탄배달도 하고 있다. 부활절, 크리스마스에는 이웃들을 찾아가 쌀과 생필품을 전달한다. 이러한 이웃사랑 실천 덕분에 강동 온누리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받고 있다. 2016년부터 2년 연속 강동구청으로부터 공로감사장을 수여받았다.

강동 온누리교회는 젊고 역동적인 교회다. 성인공동체 소속 지체가 1,200명이 넘는 데 유독 젊은 부부들이 많다. 강동 온누리교회는 젊은 부부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사랑부다. 강동 온누리교회 사랑부는 매주 토요스쿨을 열고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강의선 장로는 “앞으로도 강동 온누리교회는 차세대, 청년, 사랑부, 지역 복음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이소정, 권찬송 기자

“더욱 복된 교회 되기를”

“강동 온누리교회 창립 10주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로 세운 교회가 벌써 창립 10주년이 되었고,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10년은 더욱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동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그 땅이 부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김평래 목사(광장교회)

“너무 그림습니다”

“‘강동 온누리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너무 그림고 감동이 넘칩니다. 나비쇼핑몰에 처음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당시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나이트클럽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 기쁩니다. 멀리서나마 강동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 권혁빈 목사(얼바인 온누리교회)

“승리하시고 평안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전 강동 온누리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가 떠오릅니다. 지금도 늘 제 마음 속에는 강동 온누리교회가 있습니다. 항상 잘되기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늘 강동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 라준석 목사(사람살리는교회)

“정말 축하합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안양에서 열심히 안양제일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강동 온누리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강동 온누리교회에 더욱 큰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 최원준 목사(안양제일교회)

목회칼럼

노치형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담임)

2007년 12월 어느 날, 온누리교회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을 맞이했다. 지난 시간 동안 국내에 세워졌던 캠퍼스들과는 다른 시작이었다. ‘청년 중심의 캠퍼스’를 꿈꾸며 ‘프라미스’가 양재 여호수아공동체로부터 파송됐다. 당시 꿈은 이러했다. ‘청년들의 역동을 살려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는 교회’를 세워 보는 것이었다. 이는 2007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전체를 축복하며 복음을 전파하려는 ‘블레스싱 코리아’의 열정과 열기의 후속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여호수아공동체에서 파송받은 프라미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프라미스 제너레이션’을 외치며 지

역사회의 복음 전파와 부흥을 위해 땀 흘리며 섬기기 시작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나는 승리하리 / 주님의 거룩한 뜻 구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 주님의 나라 위해 헌신하리 우리 프라미스 제너레이션 / 우리 기도하네 주님의 나라 위해 / 우리 선포하리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을 / 우리 이뤄가리 주 약속 믿음으로 /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꿈 이루어지도록 / 기도하리”

당시 청년들의 예배를 담당했던 이상진 목사(양재 푸른누리공동체)가 지은 이 찬양을 모일 때마다 부르고 선포하며 프라미스공동체는 프라미스 제너레이션이 되기를 꿈꾸었다. 처음에는 청년들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적합한 장소 중 하나인 ‘건국대학교’에서 예배실을 임대해서 예배드렸는데 큰 부흥을 체험했다. 하지만 장소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프라미

프라미스 제너레이션

스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건대 온누리교회’가 진통의 시간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며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수 있는 자리를 정하게 하셨다. 그것은 강동구 천호3동 로데오거리 나비쇼핑몰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렇게 2010년 10월 3일 ‘강동 온누리교회’가 세워졌다. 강동 온누리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선포하며 실천 중심의 목회를 구현해갔다. 7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청년 프라미스는 성장하고 성숙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강동 온누리교회 시작부터 함께 했던 수많은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곳으로 파송되었다. 강동 온누리교회는 그들을 ‘프라미스 디아스포라’고 부른다. 프라미스로 시작되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강동 온누리교회에 남아 청년 시기를 거쳐 가정을 이룬 프라미스들은 서빙고

와 양재(특히 강동공동체)에서 섬기다가 파송된 성도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섬기는 동역자로 성장했다. 강동 온누리교회는 지역사회 교회로서 청년세대와 성인공동체가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프라미스 제너레이션’을 완성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강동 온누리교회는 ‘동서울 지역 복음화 비전’을 선포하고 복음전도의 활성화와 지역교회와의 연계를 소망하고 있다. 또 ‘젊은 부부와 차세대 부흥 비전’을 선포하고 지역을 섬기는 젊은 부부학교 운영과 가정에 바른 신앙을 전하는 차세대를 이뤄가기를 소망한다. ‘성인과 대학청년부의 연합’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비전도 선포해서 미래지향적 신개념 소그룹을 구성할 것이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꿈꾸고 있다. 강동 온누리교회의 프라미스 제너레이션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고 선하신 약속이 더욱 풍성하게 이뤄지기를 믿음으로 선포한다.



더 멋진 세상 이 간다 2. 르완다 응호망과 마을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가난과 상처 벗어 던진 응호망과 마을 주민들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난하고 소외된 지구촌 이웃들에게 ‘더 멋진 내일’을 선물하기 위하여 사막에 길을 내고, 산 위에 마을을 짓고 있다. 선교사들조차 가지 못하는 곳에도 NGO 더멋진세상의 손길이 닿고 있다. 본지에서는 NGO 더멋진세상이 지구촌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를 알리고자 한다. 그 두 번째 주인공은 아프리카 르완다 응호망과 마을 주민들이다.

/ 편집자 주



화장실에 다녀온 뒤 손을 씻는 ECD센터 아이들.

아프리카 르완다 응호망과 주민들은 NGO 더멋진세상을 ‘영웅’,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부른다.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응호망과 마을에 보건소, 조산소, ECD센터(미취학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농업학교, 양계학교, 주일학교 운영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선물을 줬기 때문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르완다 응호망과 주민들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이웃이다.

르완다 응호망과 마을에는 주민 4천여 명이 살고 있다. 르완다에서도 손꼽히는 가난한 마을이다. NGO 더멋진세상을 만나기 전에는 밭과 흙으로 지은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NGO 더멋진세상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르완다 응호망과 마을 주민들을 도왔다. 그 시간 동안 물라불 만큼 발전했다.

무의촌에 보건소와 조산소를 세우다

르완다 응호망과 마을 주민들은 요즘 살맛이 난다. 남들 눈에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 보일지 몰라도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4년 동안 NGO 더멋진세상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 이룩한 변화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보건, 농업, 교육, 차세대 신앙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믿기지 않을 만큼 큰 변화가 생겼다. 주민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가장 큰 변화는 보건영역이다. 이 마을에는 조그만 약국조차 없는 무의촌이었다. 몸이 아

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서 병을 키웠었다. 지금은 마을 입구에 훌륭한 시설의 보건소와 조산소가 생겼다. 매주 120여 명의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고, 매달 신생아 20~30명이 새로 생긴 조산소에서 태어나고 있다. 르완다 응호망과 마을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출산이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대니스는 만사이다. 이미 아이 세 명을 낳아본 경험이 있다. 전과 달라진 것은 더 이상 출산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출산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NGO 더멋진세상이 마을에 조산소와 보건소를 세워준 덕분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 사내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곧 건강한 왕자님을 만날 수 있어요.”

보건소와 조산소는 2016년부터 주민들과 지자체가 스스로 운영하고 있다.

수확량이 80kg에서 440kg으로

주민들의 소득에도 변화가 생겼다. NGO 더멋진세상이 운영한 농업학교와 양계학교 덕분에 수확량이 대폭 늘었다. 응호망과 마을 주민 90%가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런데 수확량이 많지 않았다. 하루에 한 두 끼 정도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물물교환 하는 정도였다. 어렵잡아 월 평균소득이 1,500프랑(한화 3천원)이었다. 400프랑인 음료수 몇 병 살 수 있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NGO 더멋진세상은 마을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농업학교와 양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학교와 양계학교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배운 것을 실천하기만 하면 수확량이 눈에 띄게 늘기 때문이다. 마을주민 잔 씨가 그 산 증인이다. 일 년에 콩과 옥수수 80kg 정도를 수확하던 잔 씨가 NGO 더멋진세상이 운영하는 농업학교를 수료한 뒤 똑같은 밭에서 콩과 옥수수 440kg를 수확했다. 비단 잔 씨 뿐만이 아니다. 농업학교를 수료한 주민 모두가 수확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양계학교를 수료한 소리나 씨는 요즘 행복한 상상을 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

“양계학교에서 자연양계를 배우고 닭을 잘 키울 자신이 생겼어요. 닭 1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앞으로 100마리까지 늘려서 금세 부자가 될 거예요.”

주민들은 늘어난 작물과 축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농업학교와 양계학교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하여 협동조합까지 만들었다.

“ECD센터 덕분에 아이들이 변했다”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배우고 있어요.” 마을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아이들이다. 르완다 응호망과 아이들은 화장실에 다녀온 뒤 손을 씻고, 길에서 어른들을 만나면 고개 숙여 인사를 한다. 너무 당연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일이었다. NGO 더멋진세상이 미취학아동들의 교육을 위하여 문을 연 ECD센터의 열매이다. ECD센터가 생기기전 이 마을 아이들은 흠뻑이거나 물로 씻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다. 90여명의 미취학아동들이 ECD센터에 다니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최고다. 4세 반 애지예스터의 할머니 배태로 니라 씨는 최고의 찬사를 쏟아냈다.

“돌을 쪼는 게 애지예스터가 할 수 있는 놀이의 전부였어요. 요즘은 집에 오면 ECD센터에서 배운 것들을 흥얼거리면서 놀아요. 영어로 노래를 부르고, 숫자를 세면서 말이지요.”

ECD센터에 아이들을 맡긴 부모들은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가정으로 찾아가는 ECD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교육을 받고 ECD센터 가정교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ECD센터의 운영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에브리나 씨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ECD센터가 마을을 더 좋게 변화시킬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아이들 덕분에 부모들이 변하고 있어요. 어른들과 아이들 모두 더 부지런해지고 위생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지난달 22일에는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세운 ECD센터 완공식이 있었다. 신축 ECD센터는 마을 주민, NGO 더멋진세상, 온누리교회 차세대가 함께 만들었다. 온누리교

회 예쁜, 꿈꾸는 아이들이 동전을 모아 헌금하고, 마을 주민들은 매일 아침 공사현장에 나와 터를 닦았다. 완공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온누리교회 차세대 아웃리치팀 90명은 ECD센터에 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경캠프를 열었다. 온누리교회 차세대와 ECD센터 아이들이 함께 뛰어노는 광경을 본 학부모 바란틴 씨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 어린 아이들이 우리 마을 아이들을 위하여 헌금을 하고, 르완다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번 캠프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예요. 이젠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해요.”

응호망과 마을의 변화는 이웃마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응호망과 마을에 주일학교가 생긴지 8개월이 지난 지난날 이웃마을 가혼도 마을에도 주일학교가 생겼다. NGO 더멋진세상이 이웃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CHE교육을 했는데 그 과정을 수료한 주민들이 “우리 마을 아이들도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주일학교를 열어 달라”고 부탁했다. 가혼도 마을 주일학교에는 매주 300여 명의 아이들이 참석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있다. 가혼도 마을에 살고 있는 어린이 파시는 주일학교를 매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함께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매일 주일학교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NGO 더멋진세상은 가혼도 마을 주민들을 위해 CHE교육과 식수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동족상잔의 아픔까지 치유한다

NGO 더멋진세상은 이제 동족상잔의 아픔을 회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르완다는 국민들끼리 학살을 자행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 1994년 4월부터 100일 동안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부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학살했다. 당시 인구 15%가 줄었다. 옆집에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가족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감옥에 갇혔던 가해자들이 출소해서 마을로 돌아오고 있다. 누군가 중재하지 않는다면 보복과 보복이 뒤엉켜 또 다른 학살이 생길 수 있다.

이에 NGO 더멋진세상은 제노사이드 전문 NGO Peace & Reconciliation과 함께 주민들의 아픔을 회복시킬 예정이다. 함께 땀 흘리며 마을을 개발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상처를 회복시킬 예정이다. 가난과 상처를 떨쳐낸 응호망과 마을은 르완다 최고의 마을이 될 것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특별기고 쿼어 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II)

동성애가 창조 질서라는 주장은 성경 가르침에 배치된다



김명환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서울대 신학대학
총장대 기독교대학
원 설립원장)

쿼어 신학자들은 동성애가 창조 질서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주석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성애(異性愛)를 가르치는 창세기의 창조 질서로서의 남녀의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해를 동성애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신학적 성찰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교회의 질서와 가정과 사회 질서에 근본적으로 왜곡을 초래하는 괴기한 발상(a queer idea)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동성애는 이성애의 변질(타락)이다

쿼어 신학자들은 동성애를 성경적 관점으로 보는 쿼어 신학의 입장에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을 해석하는 주석서(The Queer Bible Commentary, 2008)까지 발행했다. 이들은 창세기 1~2장에서 남자와 여자로 주어진 창조 질서인 가정(家庭)을 부인한다. 쿼어 신학은 다음같이 파악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지,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된 것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것은 특정한 목적과 필요에 따라 이차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쿼어 신학자들은 남자와 여자로서 이루어진 창조 질서는 가부장적 진술일 뿐이며 인간에게 반드시 이성애적 행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인류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정신질환자, 독신자, 동성애자를 포함하지 못하는 진술이라고 본다. 인간에게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주어 진 성향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고 동성애 실천은 마땅하다고 본다. 필자는 쿼어 신학자들의 이러한 견해는 성경의 본문의 뜻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보기는 성경본문을 쥔다 이데올로기를 왜곡했다고 본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인간 창조는 생육, 번성, 충만을 위해서다

쿼어 신학자들의 동성에 옹호는 창조 원리를 간과하는 큰 실책을 범한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동식물을 암컷과 수컷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다. 암컷과 수컷이 결합함으로써



가정이란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비로소 번식과 생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a). 창조 원리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생육, 번성, 땅에 충만이 가능하다. 남자와 여자의 창조는 일차적이지 이차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라”(창 1:27). 사람은 누구나 남자나 여자로서 일차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다. 창조 원리에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생물학적으로 절대적이고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 후손의 생육, 번성, 충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동성애는 이성애의 변태로서 성적 타락이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성적 교류를 한다는 것은 창조 질서에 맞지 않다. 성 기관이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성적 교류를 통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이다. 가정이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으로 인간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복이다. 인간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고 아담에게 배필을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 2:18).

가정이란 반쪽인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불완전한 인격과 몸을 완성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동성결혼에서는 이러한 창조의 복인 남편과 아내(짝)의 하나 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의 교환이란 짝이 되는 성 기관을 통하도록 창조주가 만드신 것이다. 남성끼리의 성교는 항문성교로 나아가는데, 항문은 배설 기관이지 생식기관이 아니다. 그러므로 항문성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성적 질서를 교란시키는 가증한 일이다. 여성끼리의 성적 교

합도 창조 질서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가증한 것이다. 성경은 말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창 2:24).

가정이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만드는 것이다.

성적 타락은 인간의 하나님 형상을 더욱 훼손한다

남자와 여자로서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반영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가진 하나님을 닮은 존엄성이다. 이 형상은 인간에게 주어진 원의(original righteousness)라고 할 수 있다. 원의(原義)란 의와 진리의 거룩함(엡 4:24)이다. 그러나 성적 타락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만든다. 창세기 6장에 의하며 인간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하나님의 신이 인간에게서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됴리라”(창 6:2-3).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구절은 인간의 성적 타락을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늘에 있는 신적 종류의 존재들”을 말한다. 이들은 모든 민족의 신앙에서 신들로 나타난다. 이스라엘에서 이들을 하늘 궁정의 신하들로 낯춘다(욥 1:6; 2:1; 사; 82:1).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됴리라”는 구절은 인간의 성적 타락으로 인간에게 있는 신적 생기(生氣)가 소멸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생기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성

품을 말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 형상을 상실한 욕의 사람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선포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4).

남녀로 창조한 이유는 생육 번식과 차이성과 다양성을 위해서다

쿼어 신학자들은 창조 이야기 해석에 있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생물학적 번식을 간과하고 있다.

“인간을 여자와 남자로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는가? 여자와 남자의 서로 다른 속에서 서로 다른을 용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서로 다른 속에서 일치와 사귀를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은 인간을 여자와 남자로 지은 것이다.”

쿼어 신학은 인간 창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후손의 번식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는다. 번식이 없으면 인류는 지속될 수 없다. 인간을 여자와 남자라는 성적 짝으로 지으신 것은 인류의 번성을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인류의 생육, 번성, 충만, 정복에는 자식들의 생산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다. 후손의 번식은 인류 사회 생존과 존속의 생물학적인 근거다. 정신 세계의 융성은 생물학적 세계의 번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쿼어 신학은 여자와 남자의 서로 다른 속에서 다름을 용납하고 더불어 살아가라고 남녀를 지으셨다고 하면서 “성을 통한 번식”을 언급하지 않는다. 남녀 사이의 신체적인 성적 교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영지주의적 오류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을 선택하고 보고 남자와 여

자 사이의 성적 교섭을 죄로 보았고, 육신을 무덤으로 보았다. 그러나 창세기는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인 차이성을 생물학적 성(性)의 차이로 본다. 서로 다름은 성의 다름이요 서로 끌림은 성의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성이란 인류를 지탱하는 생물학적 동력이다. 하나님은 창조 시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면 인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라는 이원적 성적 존재(dual sexual being)로 지으셨다는 것은 인류 사회 존속의 동력이 되게 하신 것이다.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지는 짝이 없는 가정은 후손이 없다. 동성 가정은 후대를 이룰 수 없으므로 그 가정은 소멸하며, 그러한 가정으로 이루어진 사회 또한 소멸될 수밖에 없다.

동성애는 이성애의 변태로 창조 질서가 아니다

쿼어 신학은 이성애가 창조 질서라는 것을 부인한다. “자연생태계와 인간세계에 동성애가 있다는 것은 남녀의 구분이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과 뜻을 위해서 생겨난 것임을 가리킨다. 동성애는 남녀의 사랑과는 다른 성적 사랑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동성애가 있다는 것은 인간이 남녀의 구분을 넘어서, 그리고 남녀의 사랑을 넘어서 인간의 존재와 본분, 사랑과 책임을 더욱 깊이 생각해보라는 요청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남녀의 사랑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쿼어 신학은 동성애가 마치 자연생태계와 인간 세계에 자연적으로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성경이 말하는 창조 질서로서의 이성애적 질서를 부정하는 그릇된 견해다. “동성애는 남녀의 사랑과는 다른 성적 사랑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주장은 쿼어 신학의 괴기한 주장으로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괴기하다”(queer)는 것이다. 사랑에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사랑이 있다. 에로스(Eros): 남자와 여자 사이의 육체적 사랑, 필레오(Phileo): 친구 간의 우정, 스토게(Storge): 부모의 자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Agape): 신의 인간사랑, 무한한 사랑이다. 동성 간의 감정적 교감은 우정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동성애처럼 성적 교류가 전혀 없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동성 간의 우정이라 할 수 있다. 동성애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13). 동성애는 두 사람이 정신적 교감에만 머물지 않고 성적 교류를 한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이성애인 에로스의 변태로서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쿼어 사랑이다. 이에 반해서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이며, 스토게는 부모의 자녀 사랑이며, 아가페는 하나님의 인간 사랑이다. 이들 사랑은 아름다운 덕을 가진 사

람이다. 그러나 동성애는 변태적 사랑으로 대부분 오래 지속하지 않고 단기로 끝난다. 동성결혼, 동성 커플에서 정절성이나 관계의 지속성은 매우 낮다. 남자 동성 간 결합에서 정절이 지켜지는 경우는 156쌍 중 7쌍으로 매우 드물며, 그 관계속도 대개 5년 이내이다. 레즈비언 간 커플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남성 사이의 성적 행위는 항문 성교로 이어지며 이는 에이즈라는 불치병을 초래하여 수명을 현저히 단축시킨다.

생물학적 질서와 남자와 여자의 몸의 연합을 무시한다

기독교는 영지주의와는 달리 몸의 중요이다. 창세기 1장이 이야기 하는 바 같이 남자와 여자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창조의 질서이다. 쿼어 신학은 남녀의 생물학적 질서가 절대적이지 아니라고 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여자와 남자로 창조한 것은 서로 다른 속에서 서로 다름을 넘어서 깊은 사랑과 하나 됨을 이루어 생명과 정신의 깊이와 풍요로움에 이르게 하신 것이다. 서로 다른 것들의 차이와 낯설 속에서 더욱 깊고 높은, 다양한 풍부한 생명과 정신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여자와 남자로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로 된 것은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것도, 궁극적인 목적도 아니며, 오히려 다름과 낯설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향유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이다.”

이 문장에서 쿼어 신학이 여자와 남자의 생물학적 성의 차이를 무시하고 정신과 생명의 깊이와 풍요로움만을 강조하는 것은 영지주의적 태도이지 성경적 태도는 아니다. 쿼어 신학은 서로 다름, 깊은 사랑, 하나 됨을 강조하나 이것은 정신적 차원에서만 다룬다고 말한다. 그러하여 쿼어 신학은 창세기 2장 24절(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이 말하는 몸의 다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다름, 깊은 사랑, 하나 됨을 간과하고 있다. 이는 몸의 다름과 신비를 강조하는 복음의 영지주의화를 시도하는 것이요, 성경적 태도에 충실한 것이 아니다.

쿼어 신학은 이 주장에서 남자와 여자의 가장 근본적 차이인 생물학적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깊은 사랑과 하나 됨을 이루어 생명과 정신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말하나 이러한 일치나 하나 됨은 정신적 일치를 말할 뿐 몸의 일치와 하나를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몸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창 2:24).

동성애는 몸의 하나 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영지주의자들은 몸을 무덤으로 보고 죄악

시 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의 한 몸 됨이 신랑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의 하나 됨을 상징한다고 파악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엡 5:31-32a). 여기서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된다고 하며 이것이 큰 비밀이라고 하였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한 몸이 아니라 다른 성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몸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바울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결합은 영지주의자들의 영지적 연합과는 다르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부부로서의 하나 됨이라는 몸의 결합 속에 하나님이 인간 안에 내주하시는 신비스러운 구속과 인간의 신성화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가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였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하였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요 4:2-3).

몸이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는 중성이나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남자로서 오셨다.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 동성애 행위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거룩하게 지으신 창조 질서의 몸을 훼손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음행과 동성애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17).

바울은 음란한 행위를 한 교린도교회의 성적 탈선자들과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다음같이 경고하고 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욕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 6:9-10).

“남색하는 자들”(아르세노코이타이)은 단지 이방신전에서 매음하던 남창(男娼)들의 남색(男色, male sexual pervers)에만 국한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남색하는 자들이란 하나님

의 법을 어기는 동성애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도 율법의 다른 죄들을 범하는 자들로서 ‘남색하는 자들을 위하여(아르세노코이타이스)’라는 표현도 동성애자들을 가리키고 있다.

성을 초월한다는 말은 더 이상 생물학적 몸을 지니지 않는다는 뜻

쿼어 신학은 동성애의 정당화 근거로 부활 시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든다. 쿼어 신학자들은 다음같이 파악한다.

“예수께서 열어놓은 부활의 생령세계는 창조의 뜻과 목적이 실현되는 세계다. 예수는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마 22, 30)고 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실현되고 완성되는 부활의 때에는 남녀의 구별과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녀의 구분과 차이는 궁극적, 근본적인 것도 아니다.”

이 문장에서 쿼어 신학은 동성애 정당화를 위하여 남녀의 성이 철폐되는 종말론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종말에는 생물학적 성이 주월(超越)된다는 예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지상에서 남녀의 신체적 구별과 교류를 철폐하라는 것이 아니다. 종말 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이라는 생물학적 신체의 결합에 기초한 신분에서 탈피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예수는 결론도 현재에서 남녀라는 남편과 아내의 신분을 철폐하지 않는다. 남녀의 성과 결혼을 철폐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일 뿐이다.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영지주의의 위험을 예언하고 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을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라”(딤후 4:1-3a).

정통 기독교의 견해에 의하면 하늘나라에는 육신이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 가는 곳이니 생물학적인 남녀의 성은 부활의 몸 안에서 극복된다. 그러나 성경은 현재에 사는 자들의 삶은 생물학적 몸이기 때문에 가정의 대를 잇고,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해야 한다.

그런데 동성애는 자녀의 대가 끊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우리는 중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자가든지 아니면 여자로 사는 것이다. 성으로 중성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창조 질서의 근본으로 만드신 섭리다. 이것을 어기고 인간은 살 수 없다. 부활한 몸은 하늘의 천사처럼 생육 번식이 없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가정을 가진 자로서 생육 번식의 위임을 받고 있다.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차세대 패션(Passion)캠프 청소년 2,100명 참석

4년 만에 막 오른 청소년을 위한 예배축제 ‘패션캠프’에 청소년 2,100명이 참석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로 결단했다. 이번 패션캠프에는 다문화 청소년들도 함께 참석해서 더욱 뜻 깊었다. 차세대 패션캠프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충청북도 괴산군 청소년 수련마을 보람원에서 막 올랐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2018 차세대 패션캠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2차로 나뉘어 진행됐다. 1차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2차는 25일부터 27일까지였다.

청소년 2,100여 명이 참석한 패션집회 현장은 말 그대로 열광의 도가니였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다. 강의와 말씀을 듣는 청소년들의 눈빛은 반짝였고, 표정에는 설렘과 진지함이 묻어 있었다.

강사들과 게스트들은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정의와 역할, 사명 등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도록 권면했다.

노희태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는 “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읽고, 매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정의했다. 게스트로 출연한 개그맨 조래훈 형제는 “패션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

의 순수한 신앙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다음세대가 밝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지금처럼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청소년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문수인 자매(서빙고 파워웨이브 4부)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고 했고, 요타 형제(안산M센터 파워웨이브)는 “난생처음 교회캠프에 왔는데 찬양할 때 가슴이 벅찼다”고 고백하며 “다음 캠프에도 꼭 참석할 것”이라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도 빛났다. 자원봉사자 이원기 형제(하늘공동체)는 “청소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이 났다”고 했고, 김종아 목사(서빙고 차세대)는 “이번 패션캠프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자 간증

기억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처음 패션캠프에 참가한 것은 14살 때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뜨거운 열정과 은혜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때 문인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길 지에 대한 기대를 가득 안고 패션캠프에 참석했다. 역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다.

모든 강의와 프로그램이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좋았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은 김건희 형제님의 강의였다. 패션캠프 첫째 날 김건희 형제님은 ‘기억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강의하셨다.

“우리는 신발보다 발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발을 위해 신발을 벗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성경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정작 세상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돌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정대로 행동했었다. 같은 죄인임에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고 포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강의와 설교 중에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았다.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새삼 알게 되었다.

이제 패션캠프가 끝나고 삶으로 돌아간다. 또다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되새기며 ‘기억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이번 패션캠프를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망한다.

/ 이다은(남양주 온누리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처음 갔던 패션캠프가 떠올랐다. 나에게 패션캠프는 정말 신기했고, 색다른 경험이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패션캠프가 오랫동안 열리지 않다가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둔 올해 다시 막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좋았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그때 패션캠프에서 경험했던 열정을 다시 맛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기대감이 높아졌다. 또한 이번 패션캠프에 참석해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고 싶었다. 일상에서 쉽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았다.

이번 패션집회에 ‘파워페스티벌’이라는 일종의 연속특수 같은 행사가 있다는 공지를 받고 준비를 했다. 친구가 연극을 기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같이 참여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패션캠프 집회도 집회지만 그 연극을 준비했던 과정이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 준비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없었다. 대본을 작성할 때는 더욱 힘들었다. 대사 작성과 대사에 맞는 적절한 동작, 어조 등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어려웠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대본을 작성하고, 배역을 정했다. 패션캠프 가는 버스 안에서 식사시간, 비좁은 숙소에 모여 열심히 연습했다. 무대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즉흥적인 동작들도 선보일 수 있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합쳐져서 도저히 우리들만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었던 연극이 완성되었다. 이번 패션캠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3일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났던 그 좋은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됐다. 예수님 자체로 좋았던 그 순수했던 믿음을 떠올릴 수 있었다.

중보기도도 열심히 했다.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무엇보다 값진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나에게 이번 패션캠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 이미연(대전 온누리교회)

“거룩한 제사장,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장로중보기도모임 개강 ... 서빙고 순형홀 10시 30분



365일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는 장로중보기도모임.

온누리 장로중보기도모임이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개강예배를 드렸다. 이날 개강예배에 참석한 장로 63명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달라”며 부르짖었다.

온누리 장로중보기도모임 개강예배는 찬양, 백승웅 장로의 대표기도, 장로중창단의 특송, 이재훈 담임목사의 격려사, 박종길 목사의 설교,

중보기도, 손신국 목사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우리 민족과 교회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장로님들의 중보기도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격려했고, 박종길 목사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설교했다. 박목사는 “중보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며,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조항진 장로(온누리 장로중보기도모임)는 “하루 24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기도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장로중보기도모임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순형홀에서 진행된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임현수 목사 귀환 감사예배

3월 8일 오후 6시 양재 화평홀

북한에 31개월 동안 억류됐던 임현수 목사(토론토 큰빛교회) 귀환감사예배를 3월 8일 오후 6시 양재 화평홀에서 드린다.

임현수 목사는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20여 년 동안 북한 선교에 목숨을 걸어온 선교사다. 북한에 100여 차례 방문하면서 교육, 식품,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북인도사

업과 선교를 해오다 지난 2015년 1월 북한에 억류됐다.

무기노동교화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2017년 8월 9일 병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번 예배에서는 무사히 귀환한 임현수 목사를 축복하고, 북한 선교와 통일의 비전을 나눈다.

/ 김영선 기자

산마루교회 청년공동체 첫 예배

오늘(4일) 오후 2시 산마루교회

산마루교회 청년공동체가 첫 예배를 오늘(4일) 오후 2시 공덕동 산마루교회에서 드린다. 오늘 예배에서는 산마루교회 청년공동체의 비전과 역할을 나눈다.

산마루교회 청년공동체에는 20여

명의 청년들이 소속되어 있다. 온누리교회 요셉공동체와 SNS공동체 청년들도 일부 파송되어 있다. 산마루교회 청년공동체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산마루교회에서 드린다.

바이블칼리지 세미나 개최

2018년 기도학교,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바이블칼리지 세미나 ‘2018년 기도학교’와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가 서빙고와 도곡교육관에서 개강한다.

‘2018년 기도학교’ 오전반은 3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총 10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40분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저녁반은 3월 19일부터 4월 16일까지 총 5주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40분까지 진행된다. 도곡교육관 충성홀에서 진행된다. ‘주제별 기도 강의와 실습’이 병행된다. 강사는 김현미(《말씀에 기도예》저자)이다. 기도를 배우기 원하거나 기도의 연속성이 없는 성도가 대상이다.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는 도곡교육관 기쁨홀에서 3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6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자녀양육의 원리’, ‘사랑의 방법’, ‘혼계의 방법’, ‘대화의 방법’ 등을 배운다. 강사는 유경상(크리스천성경센터 대표)이다. 부모, 주일학교 교사 및 교역자가 대상이다.

문의: 02-2078-3267, 02-2078-3275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유기성 목사의 ‘예수님과 동행일기 세미나’

3월 17일까지 선착순 300명 모집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세미나가 있다. 4월 2일과 3일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열리는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의 ‘예수님과 동행일기 세미나’가 바로 그것이다.

예수님과 동행일기 세미나에서는 유기성 목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회’, ‘영성일기의 필요성’, ‘훈련

방법’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목회자, 사모, 신학생을 대상으로 선착순 300명을 모집한다. 등록기간은 3월 17일까지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journalwithjesus.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 5만원.

문의: 031-753-2703

서빙고 ‘병원심방 전도사역’ 개강

서빙고 온누리교회 ‘병원심방 전도사역’이 3월 14일 개강한다. 병원심방 전도사역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301호에서 진행된다. 주중에는 심방과 전도를 병행한다. 치유사역과 전도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10-4753-3150

양재 베이직큐티 8기 참가자 모집

양재 베이직큐티 8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양재 베이직큐티는 3월 11일부터 4주 동안 매주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베이직큐티에서는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10-2428-1735

02-570-7349

/ 권찬송 기자

남양주 토요문화교실 오픈

봉사자, 댄스, 난타, 드럼 강사 모집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토요문화교실’을 오픈한다. 3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토요문화교실에서는 다문화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난타, 리코더, 영어, 수학, 국어, 드럼 등 다양한 문화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봉사자와 댄스, 난타, 드럼 강사를 모집하고 있다.

문의: 010-2724-4563

양재 새가족 만남의 잔치

일시: 3월 11일 (주일) / 시간: 오후 3:30(식사제공)

장소: 양재 드림홀 대상: 2018년 01월 14일~2018년 2월 24일까지 등록 성도

강남A 공영구	강남B 문재정	황숙연	도곡 황혜정	오도훈 이정은	LeeJung	김지산 이정은	이승엽 조병섭
김신환	박성욱	강남D 송영건	분당A 김재훈	서초A 김보영	서초C 강유미	송파 송수연	진인준 최주철
김영주	서지현	안지원	송호성	서초B 김경희	박경미	양우진	푸른누리 김동호
김형준	유수경	이혜진	이지은	김소희	박기현	양우진	김동훈
송용상	이미란	한숙기	최지은	김소희	송현경	유현우	손병희
원숙연	강남C 강수경	김미령	분당B 노유나	오지복	서영기	장현구	안주영
유금임	조희배	이종훈	서원균	유정자	송현우	김정원	이동일
이지수	한수현	임수은	이성기	한성준	서초D 권정윤	배은형	최해선
정용구	함영훈	차준엽	엄창용			이승문	
한은희							

장로칼럼

권사칼럼

‘10만 청년’ 카운트다운

이명복 장로
(서빙고공동체)

얼마 전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층 복도에서 낯익은 청년들을 만났다. 양손에 의자를 들고 지하 2층 비전홀로 내려가는 청년들이었다. SNS공동체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비전홀에 앉을 의자가 부족해서 3층 본당에서 가져오고 있었다. 그렇게 의자를 날라도 많은 청년들이 의자에 앉지 못하고 계단에 앉거나 서서 예배를 드린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찡했다. 700명이 들어서면 꼭 차는 비전홀에서 1,050명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안전사고라도 날까 걱정이 되었다. 사실 내게는 오래된 걱정거리였다.

나는 4년 동안 섬긴 SNS공동체 대표멘토직을 지난해 연말 내려놓았다. SNS공동체 청년들을 볼 낯이 없었기 때문이다. SNS공동체는 신설된 지 4년 만에 80명에서 12배가 넘는 1천여 명으로 성장했지만 그에 맞는 예배장소를 제때 마련해 주지 못했다. 대표멘토를 내려놓기 얼마 전 순장모임에서 특강을 하면서 ‘가을하늘’이라는 시 한편을 소개했다. 그 시는 내가 2000년에 썼던 줄시 중 하나이다.

“눈이 부서 하늘을 쳐다볼 수 없네. 아니, 눈 감으면 더욱 과란 하늘인 걸...”

이 시를 들은 여러 청년들과 원유경 목사님이 내게 그렇다고 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SNS공동체를 떠나는 날 나는 청년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 더욱 생생하고 선명하게 여러분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SNS의 창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신 것을 기초로 그동안 ‘눈으로

쓴 칼럼’이란 제목의 영상칼럼 20여 편을 유튜브로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우면 ‘눈 감고 쓴 칼럼’을 쓰겠습니다.”

컴퓨터 키보드에서 ‘눈’이라는 한글 자판을 영문으로 변환하면 ‘SNS’가 된다. 내게 있어 ‘눈 감고 쓴 칼럼’이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SNS 안이 아니라 밖에서 바라보며 쓴 칼럼이란 뜻이고, 또 하나는 비록 보이진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쓴 칼럼이라는 뜻이다. SNS공동체를 떠난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벌써 그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런 찰나에 그들이 의자를 들고 나르는 장면을 보니 내 속에 숨어있던 미안한 마음이 불쑥 고개를 들었다. 예상보다 빨리 이 글을 쓰게 된 까닭이다.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기 한 달 전, ‘2011년 카운트다운’ 집회에서 ‘온누리교회 10만 대학 청년’을 비전으로 메시지를 선포하셨다.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한 하 목사님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나는 SNS공동체가 급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청년 부흥의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그들에게 조금 더 넓은 장소를 교회가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교회의 미래, 한국의 미래가 청년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겨울의 끝자락, 반가운 소식을 들려왔다. SNS 청년들이 올봄부터 좁은 비전홀에서 벗어나 넓은 본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교회의 리더십들이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린 결정이다. 멀리만 할 것 같은 ‘10만 청년’을 위한 카운트다운 소리가 생생히 들려오는 것 같아 그저 감사하다.

SNS공동체의 이름은 ‘Salt & Shine’의 약자이다. ‘빛과 소금’을 소중히 영적 지표로 삼은 그들에게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 이름을 하나 붙여주고 싶다. ‘Sail & Sail’이라고 항해하고 또 항해하며 높은 하늘로 비상하고 또 비상하는 청년들이 되길 바란다.

무릎선교사를 아시나요?

양명자 권사
(가정사역공동체)

나는 35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무릎선교기도학교를 찾았다. 무릎선교기도학교는 퇴직 후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였다. 처음 무릎선교기도학교에 갔을 때를 잊을 수가 없다. 온돌방에서 100여 명의 여성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교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함께 기도했다. 그야말로 Acts 29현장이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어머니의 깊은 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초등학교 시절 내가 살고 있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선교사님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다. 교회학교 분반공부 시간에 항상 들었던 말이 있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병과 가난에 찌든 우리나라에 왔다는 것이다. 그런 선교사님들이 고마웠고, 나도 크면 선교사님들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교회학교와 중고등학교, 대학 기독교 동아리를 섬기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나 내 안에 끊임없는 갈증이 있었다.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평강과 기쁨이 없었고, 오직 헌신만 있는 교회생활에 싫증났다. 어느 날 너무 억울한 생각에 한참을 울면서 기도한 뒤 읽은 말씀이 로마서였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9).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했다. ‘복음에 빚진 자’로서 선교해야겠

다는 마음도 더욱 커졌다. 그러나 오랜 직장생활과 다른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 선교사로 결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직장생활을 마친 뒤에야 무릎선교기도학교를 찾게 되었다.

무릎선교기도학교에 참여하면서 막연했던 선교가 구체화되었다. 매주 선교사님들의 삶의 이야기와 사역, 기도제목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혼자서는 힘든 기도를 무릎선교공동체와 함께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보았다.

‘세계기도정보’를 보면 231개 나라가 있다. 그 나라들 중 몇 나라씩 입양하고 리서치하며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가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무릎선교기도학교에서 만난 선교사님들과 계속 소통하며, 기도제목을 공유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의 선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힘과 위로를 얻고 가실 때 뿌듯하다.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열방과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여성들이 있는지 몰랐다”며 “여러분들은 진정한 무릎선교사입니다”라고 불러 주실 때마다 선교사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다. 가정사역공동체에 속해 있는 나는 국내외 선교사 부부와 이주민들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고 싶다. 가정의 회복을 통해 복음이 더욱 풍성해지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한다. 많은 여성들을 여성사역 무릎선교기도학교의 무릎선교사로 초청한다.

무릎선교기도학교 개강
일시: 3월 23일~6월 8일
(매주 금) 오전 10시
문의: 02-3215-3227

신앙에세이

채기석 목사
(서빙고 차세대)

나에게는 11살과 8살 된 딸이 있다. 아 내까지 세 명의 여자와 한 집에 살고 있다. 나 혼자 남자다 보니 집에서 왕처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때때로 머슴처럼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하지만 행복하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늘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사회에서는 이웃들과 함께 살아간다.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있다. 바로 하나님을 통한 영향력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는 하

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와 같다.

전임사역을 시작하면서 있었던 일이다. 부흥축제 프로그램팀에서 섬기고 있었다. 새벽녘에 나가서 늦은 밤에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잦았다. 새벽에 나갈 때면 아내에게 그냥 자라고 했다. 부흥축제 마지막 날 새벽에 나가려는데 아내가 “지금 가냐”고 물었다. 무심코 “일하러 갔다 올게”라고 대답했다. 그때 아내의 한 마디가 나를 회개하도록 만들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난 아내가 나에게 “똑바로 해요. 일한다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요”라고 했다. 어찌 보면 일과 사역은 똑같은 말이지만 의미가 다르다.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리다.

내가 어떻게 하면 똑바로 살아가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을 알아야 한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믿음과 행위의 측면에서 보면 네 종류의 사

람이 있다.

첫째, 믿음도 좋고 행함도 좋은 사람이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둘째,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는 사람이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셋째,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들은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하고 교회를 욕보이는 사람들이다. 넷째,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있는 사람이다. 외적으로 보면 웬만한 성도보다 낫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다. 그들이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며,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다. 문제는 우리가 가지가 아닌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올해 온누리교회 표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똑바로 살아가 수 있다. 하나

님은 우리를 향한 비전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짜 모습은 행복하다. 기쁨이 있다. 즐겁다. 하지만 가짜 모습은 기분이 좋지 않다. 짜증난다. 우리가 믿음의 예배자,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가는 때 하나님께서 함박웃음 지으시며 행복해하실 것 같다.

윤정희 사모님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를 읽고 한동안 앓드리어 회개의 눈물을 흘린 구절이 있다.

“아버지, 남편이 이름뿐인 목사로서 사는 거 싫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살아오신 그 길을 눈곱만큼이라도 닳아서 따라가는 그런 목사로서 살게 해주세요. 오직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목사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똑바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똑바로 살아가기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말씀과 하나님 나라

겉은 크리스천인데 속에서는 유교적인 세계관이 나오고, 유교적인 세계관을 벗겨보면 불교관이 나오고, 그것을 벗겨보면 샤머니즘이 나옵니다. 마음속에 단단한 돌이 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깊이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자칫하면 피상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를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편견과 고집, 세계관을 부셔야 합니다. 깨뜨려야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변화시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겔 36:26).

성령님께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셔서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도 부셔지고 좋은 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가시덤불’

세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은 가시덤불에 덮여 있는 땅입니다.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22절).

가시덤불에 덮여 있는 흙은 좋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이 함께 있기 때문에 좋은 기운과 좋은

자양분을 가져가버립니다. 가시덤불이 영양분을 가로채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영양분을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 등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기운을 빼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식일수도 있고, 직업일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우선순위가 바뀌면 영양분을 빼앗깁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어느 연령이든지 마음속에 자라는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라는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우선순위가 바뀌면 영양분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친척과 부모와 형제 자매 심지어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말씀의 역사가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열매 맺는 ‘좋은 땅’

네 번째는 열매 맺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개역개정)”(23절).

좋은 땅은 씨앗을 잘 받아들이고, 그 씨앗이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네 가지 비유를 보면서 그렇게 살도록 정해진 인간의 운명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길가와 같은 심령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은데 어떤 사람은 좋은 흙으로 태어나서 좋은 흙으로 죽게 되는 결정된 운명의 상태가 아닙니다. 좋은 흙으로 시작했다가 많은 상처를 받고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해 지기도 하고, 돌밭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 돌이 부셔지고, 밭이 기경되어서 다시 좋은 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화가 가능합니다. 토양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마음의 토양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네 스스로 의의 씨앗을 심고 인애의 열매를 거두며 묵은 땅을 잘 갈아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마침내 그분이 와서 의의 비를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호 10:12).

하나님께서 묵고, 굳어서 돌같이 단단해진 마음을 부수시고 기경해서 좋은 밭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네 가지 밭이 모두 있습니다. 한쪽은 길가, 한쪽은 돌밭, 한쪽은 가시덤불, 또 한쪽은 좋은 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밭을 끊임없이 기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면 깊이 뿌리내리고,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돌밭이 끝이 아니고, 가시덤불이 끝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 정리 김남철 부장 one@onnuri.org

그곳, 탄자니아 여행기



김성환 집사
(가정사역공동체,
온누리신문 객원기자)

아내와 함께 보름 동안 다녀 온 아프리카 탄자니아 여행은 막연히 상상 속에서만 그려보던 동물들의 왕국 ‘세렝게티’, 적도의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는 에메랄드 빛 바다의

섬 ‘잔지바르’ 등 꿈에 그리던 곳을 실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던 은혜 넘치는 시간들이었다.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이들이 그동안 거두어들이고 있는 풍성한 열매들을 직접 지켜 볼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탄자니아 선교사들이 거두어들이는 대표적인 열매라고 하면 학교사업을 들 수 있겠다. 학교사업의 성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의료사업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열매를 맺고 있었다.

선교사로 탄자니아에 파송된 지 36년째라고 하는 이종순 선교사를 중심으로 팀사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사업은 마치 우리나라 구한말 연회전문, 이화여전 등을 설립한 미국인 선교사들이 이루어 놓은 교육사업을 연상케 한다. 우리나라 현대화 여행기에 미국인 선교사들 덕분에 오늘의 연세대, 이화여대, 세



브란스병원 등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은 우리나라 학교건축 전문가들에 의해 설계되었다. 향후 100년을 염두에 둔 교육과정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통합유니버설학교를 염두에 두고 운영되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그동안 탄자니아 제2의 도시인 ‘아루사’에 선교본부와 선교사업부를 벌여 온 이종순 선교사님은 이곳 아루사를 비롯해 마사이부족이 거주하는 ‘엔카렛’과 탄자니아에서도 오지 중의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싱기다’에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싱기다에는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장기임대 받은 대지 16만평에 순수 우리 자본(후원금)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기술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설립하는 대단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탄자니아 최대 규모이자 최고의 캠퍼스를 자랑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확실하다.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유치원만 해도 웬만한 초등학교 규모를 벗어난 위용을 갖추고 있는데 “거의 허허벌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곳에 과연 그 정도 규모의 교사를 채울만한 유치원생들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일단 유치원 문만 열면 오히려 교사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란단.

의료사업 역시 아루사에서 2014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파모자병원을 중심으로 엔카레와 싱기다에서 전개되고 있다. 의료사업의

중심인 아루사 파모자병원은 현재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해 모두 27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면서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HIV 환자들뿐만 아니라 노령국민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생활필수품도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교육 및 의료사업 외에도 조림사업을 목적으로 묘목을 키워 여러 지역에 무상으로 분배하고 있는가 하면, 김명식·양은숙 선교사를 중심으로 오지의 마사이부족과 전기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솔라랩 보급사업’과 ‘영어성경공부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 잔지바르에 파송된 유근원·고세진 선교사를 비롯한 약 30여 명의 선교사들에 의해 학교사업, 고아사역, 교회사업, 태권도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모든 사역에 따른 재정은 한국으로부터의 후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선교지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으나 이곳 선교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 역시 비용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적지 않은 압박을 받고 있다.

오직 탄자니아인들의 문맹퇴치와 건강보호를 위해 교육과 의료사업에 온몸을 투신한 선교사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뿐이다.

14 은누리신문

서빙고 O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은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3: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 열방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재)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은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3월 8일(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를 은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로역) 잔여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은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2018년 1학기 시니어아카데미 기간: 3월 14일~5월 23일(매주 수 오후 2시 ~오후 5시) 대상: 65세 이상의 성도 접수: 당일 접수 및 목회행정실 문의: 02-3215-3263 은누리남성성교합창단 단원 모집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장소: 서빙고 한동을 문의: 신용환 총무(010-8695-8341) TP33기 단기선교사 훈련생 모집 기간: 6월 18일~7월 13일(4주간) 마감: 5월 21일(월)까지 신청: http://www.visionvillage.org 문의: 031-331-8182 CMN 마하나임 국내 아웃리치 일시: 3월 25일 일요일 오후 2시~6시 장소: 남양주 은누리교회 사역: 의료사역 (양방 & 한방), 미용사역, 수기치료 문의: 010-8898-3719 교회 홈페이지 관리자 모집 자격: 세례교인, 관련업무 1년 이상 경험 협자(WordPress, CSS 사용가능) 문의: mask@onnuri.org	양재 O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 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투수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심방전도 요청을 받음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월 19:30 양재 JDS홀 문의: 장형식 총무(011-515-6174)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3월 8일(목) 오전 10:30 장소: 본관 B3층 JDS홀 도곡 2부 찬양사역자모집 모집: 주일제, 챔버 연습: 주일제(화요일 오후 7시~9시 30분) 챔버(주일 오전 10시 50분) 오디션: 주일제(등록교인, 연령제한 없음, 파트조정을 위한 음색과 음역 테스트, 성가대 반주자 모집) 챔버(전공자에 한함) 문의: 주일제(010-3139-5870) 챔버(010-2907-1859) *게시판 광고마감목요일 오후 4시
부천 O32. 322.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7:00/2부 오전9:00/3부 오전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4:00(대청예배)/6부 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본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우)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홀	수원 O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은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대전 O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시 본당 / 4부 오후 4시 본당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O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 / 4부(청년) 오후 4:00 본당 [다문화] 주일 11:00 / 4층 온유홀 주중예배 힌디어 토요일 19:00 5층 믿음홀 / 네팔어 토요일 19:00 5층 소망홀 /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 수요목양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택 O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화요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00 비전홀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10:30 본당 수요여성예배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헬터	인천 O32.437.9686 주일예배 송도 컨벤시아 2층 볼룸C홀 / 성인 1부 오전 9시 / 성인 2부 오전 11시 30분 / 성인 3부 오후 2시 / 대학청년부 오후 2시 (예니셀 7층) 차세대예배 오전 11시 20분 송도 컨벤시아 1층 / 영아부 107~109호 / 유치부 110~111호 / 꿈땅1부 115호 (오전 9시) / 유년부 113호 / 초등부 115호 / 어린이영어예배 106호 (오후 2시) / 사랑부 103호 프리스페이스 3층 / 중등부 오전 11시 20분 / 고등부 오전 9시 국제예배 제너셀 7층 / 중국어 예배 오전 11시 30분 / 몽골어 예배 오후 2시 주중예배 프리스페이스 3층 /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시 20분 / 수요오전여성예배 오전 10시 30분 / 수요저녁부흥예배 오후 7시 40분	강동 O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본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양지 O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를(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영아) / 11:00 / 3층 주선애홀 (본당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0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00 / 지하1층 위더스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00 / 2층 이벤텔러를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00 / 지하1층 길보트를 파워웨이브(중·고등) / 11:00 / 지하1층 박모세를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CGNTV

제 2 회

시 청 수 기

공 모 전

접수기간

2018.
2. 19^월 - 3. 27^화

공모주제

CGNTV 프로그램
시청을 통해 느낀
감사와 회복의 이야기 등CGNTV에서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
(KNOCK, 미니시트콤 등 SNS 콘텐츠 포함)

작성방법

지정서식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에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권장분량
A4용지 1-2장 내외(최소 1,500자 이상)

문의

02-3275-9446

콘텐츠편성전략팀 수기공모전 담당자

결과발표

2018. 4. 6^금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예정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http://www.cgntv.net>메일 접수
cgnessay@cgntv.net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269 CGNTV
콘텐츠편성전략팀

시상내역

대상(1명) | 핸드폰(100만원 상당)
최우수상(1명) | 텔레비전(50만원 상당)
우수상(3명) | 백화점상품권(15만원 상당)
장려상(5명) | 보조배터리(2만원 상당)
입상(10명) | 커피 기프티콘(1만원 상당)

시상식 추후공지(수상자는 가급적 참석 요망)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를 참고해주세요.